

근대의 기점 논쟁

담당교수 : 배민재

1860년대 설

- 농민들의 자각을 통한 반외세 투쟁 & 반봉건 투쟁에 주목
- 북학한계의 시기구분과 일치
- 반봉건 투쟁 ex) 삼남지역의 임술민란
- 반외세 투쟁 ex) 동학의 창조, 대원군의 정치 개혁

☞ 반외세·반봉건 투쟁이 1860년대 이전 시기의 투쟁과 변별되는 근대적 지향점이 추출되는가?

☞ 반외세·반봉건 투쟁은 이론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가?

1876년설

- 조선의 개항을 기점으로 설정
- 자본주의적 관계의 급속한 확대, 외부로부터의 압력에 주목
 - 국제환경의 격변과 외압에 대한 주체적 대응과 저항
 - 개항과 자본주의 세계시장에의 편입에 의한 사회변동

☞ '외세의 침략'이라는 타율적 계기를 근대의 기점으로 설정하고
있지는 않는가?

1894년 설

- 갑오개혁을 근대의 기점으로 설정
- 국가체제의 성격변화, 각종 개혁 조치에 주목
- 갑오개혁이 이전까지의 사회와 그 이후의 사회를 단절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

👉 각종 개혁조치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어 한국사회가 질적으로 변화하였는가 하는 점이 보다 심도 있게 밝혀져야 할 것

번외편 : 자본주의 맹아론

- 자본주의의 유럽적 발전 형태가 아니더라도 자본주의적 요소, 내지 자본주의와의 유사점이 한국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관점
 - 선결하는 문제점들....
 - 자본주의를 형성하는 요소는 무엇인가?
 - 자본주의의 조건은 무엇인가?
 - 자본주의의 초기적 현상을 어디까지 소급하는가?
- ex) 농업의 상업적 경영화, 수공업의 상업 자본에 의한 잉여 등

☞ 조선후기에 자본주의 맹아적인 모습이 나타났다고 하여 이를 근대의 출발로 바라볼 수는 없음

1860년대설 vs 1876년설 vs 1894년설

- 반침략·반봉건 투쟁 : 임술민란(1862), 병인양요(1866), 신미양요(1871)
- 외부의 압력, 개항 : 朝日修好條規 (1876)
- 갑오개혁, 근대적 사회체제(1894)
 - ☞ '제국주의의 규정성' vs '자주적 근대화의 가능성(자본주의 망아론)'
 - ☞ '근대 =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성립' ?
 - ☞ 근대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가?